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¹⁾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이 연구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그로 인해 결혼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결혼만족 매개가설을 검증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의 기혼자 489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예측대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자기해석 미분화유형과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보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높게 보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련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 및 결혼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을 안정적으로 지각하였고 그러한 효과는 결혼만족을 투입했을 때 거의 대부분 사라짐을 보여, 자기해석 통합유형이 결혼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결혼만족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주요어: 결혼만족, 결혼안정, 자기해석, 독립적 자기해석,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자기해석 통합 유형

1) 이 논문의 일부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B00159). 본 논문을 읽고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해석(self-construal) 혹은 자기관(self-view)은 성인남녀의 사고성향, 행동동기 및 정서적 경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Markus & Kitayama, 1991, 1994), 대인관계나 생활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쳐(Cross, 1995) 결혼만족, 생활만족 등의 주관적 안녕감을 좌우한다(현경자, 2004; Hyun, 2001; Kwan, Bond, & Singelis, 1997). 따라서 근래에 꾸준히 증가해 온 한국인의 이혼을 고려하여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해석 유형이 궁극적으로 결혼의 안정과 해체방지도에 기여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해석과 주관적 안녕 또는 결혼결과(marital outcome)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이 발견된다. 더욱이 미국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자기해석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개인 내에 공존함을 일관되게 보여주지만(예: Hyun, 1995; Misra & Giri, 1995; Singelis, 1994; Tanaka, 2000),¹⁾ 이 두 자기해석의 통합 유형에 따라 개인의 사회심리적 경험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자기해석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근래 몇몇 연구만이 기혼남녀(현경자, 2004), 해외이주자(Hyun, 2001) 등 일반 성인에 초점을 맞췄기에 연구결과의 의미부여에 한계가 있다.

1) 성인 한국인이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래 연구에서 이 두 유형의 자기해석이나 그와 유사한 특성들 간에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예: 김동직, 한성열, 1998; 현경자, 2004; Lam & Zane, 2004)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각각의 자기해석 유형과 관련된 변인이나 기능은 이 두 자기해석의 역할이 구별되며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서 주도해 온 심리연구는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자기해석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간과하였다. 근래에 문화심리 연구를 통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문화차가 드러나면서 국내외에서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예: 김지경·김명소, 2003; Cross, 1995; Kwan et al, 1997; 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 1998), 문화차를 밝히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자기해석의 개인차나 기능과 역할을 밝히는 연구에 소홀하였다. 자기(self)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고(Baumeister, 1998; Epstein, 1973; Markus & Wulf, 1987), 현대 한국인들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생활이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기혼남녀의 자기해석 또한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있으며, 그런 자기해석의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생활의 주관적 경험이 차이가 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현대 한국인의 이혼은 외적 요인보다 기혼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정현숙, 1997), 특히 부부간의 성격차이, 자기중심적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자기해석과 같은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이 결혼의 질과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의의가 있다.

기존의 결혼결과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즉, 성격, 태도, 정체감, 가치관 등은 결혼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나타난다(김영희, 1999; Caughlin, Huston, & Houts, 2000; Fitzpatrick, 1988). 하지만 자기해석이 결혼결과의 양 측면, 즉 결혼만족과 결혼안정 각각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분석에

함께 고려한 연구는 드물고, 기혼자의 자기개념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있지만(현경자, 2004 참조),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기혼자의 자기성향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구 이론이나 연구들은 자기발달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간과한 채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Thompson & Walker, 1989; Veroff, Douvan, & Kulka, 1981)이나 성역할 태도(Cooper, Chassin, & Zeiss, 1985; Stevens, Kiger, & Riley, 2001) 또는 성역할 정체감(Hiller & Philliber, 1989)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호의존성이나 관계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결혼결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현경자, 2004).

현대인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국내연구들은 서구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의해 구분되는 성역할 정체감 또는 전통성과 비전통성(혹은 평등성)에 의해 분류되는 성역할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예: 박태온, 1983; 윤경자, 1997; 이동원·최선희, 1997; 이미숙, 1997, 2000; 이신숙·이경주, 1999; 이영미·김정희, 1997; 최규련, 1984), 주로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 발견된다. 이 부류의 연구들은 현대인의 결혼만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종종 대비되는 개인의 독립이나 권리에 대한 추구하고 개인의 의무나 상호의존에 대한 존중 및 관계지향이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룰 때 결혼생활에 긍정적인지를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 Helgeson (1994)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개인의 독립적 성향을 반영하는 행위주체성(agency)과 관계지향성을 반영하는 친교성(communion)은 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

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친교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극단적 행위주체성이나 행위주체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극단적 친교성은 신체 및 정신건강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이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개인의 사회기능과 안녕감 유지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이며, 이 두 성향이 개인에게 양성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각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면, 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발달한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서도 높은 만족을 보이며, 그로 인해 결혼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최근에 기혼자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을 조사한 국내연구(현경자, 2004)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각각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를 밝혀 결혼만족에 있어서 자기해석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지만, 이 두 자기해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혼결과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지는 못하였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해석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기존연구(현경자, 2004) 자료와 결혼안정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한국 기혼자들이 갖고 있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어떤 식으로 통합되어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결혼만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2) 이 연구에서 저자는 self-construal을 ‘자기관’으로 번역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심리학계에서 ‘자기해석’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따랐다.

자기해석의 정의와 개인차

‘자기’ 또는 ‘자아’로 해석되어지는 셀프(self)는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표상(representation)들로 구성된 개념 체계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고 변화하는 까닭에 다면적이고 역동적이다(Epstein, 1973). 자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자기해석’ 또는 ‘자기관’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일반적으로 자기해석은 역사 및 사회문화적으로 조성된 환경의 산물로 간주되며(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문화나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에 따라 독립적 성향이 우세하거나 상호의존적 성향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조궁호, 2003; Cross & Madson, 1997; Fiske et al., 1998). 예를 들면, 개인중심적 인간관이 우세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촉진하는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의 실천을 통해 독립적 자기해석이 양성되도록 하고,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우세한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집단 및 사회관계의 화합에 유용한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의 실천을 통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발달시킨다(Fiske et al., 1998). 성인 한국인들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성차가 없어(김지경·김명소, 2003), 유교적 집단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기혼남녀들에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양성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의 독립성이나 관계성에 근거한 자기해석에 성차를 초래한다(Cross & Madson, 1997; Gilligan, 1982). 전통적인 사회화 과정은 여성에

게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의 욕구충족을 지향하도록 격려하여 관계적 자기해석을 발달시키고, 남성에게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특성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목적달성과 성취를 지향하도록 하여 독립적 자기해석을 양성한다(Eagly, 1987; Gilligan, 1982; Maccoby, 1990). 따라서 이러한 자기해석의 성차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자기해석과 많은 점에서 유사함이 지적되고 있다(Cross & Madson, 1997). 하지만 현대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양성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장려하는 경향이 높아(이영미·김정희, 1997), 현대인의 자기해석이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하리라는 추정 또한 가능하다. 실제로 성인 한국인들의 자기해석을 조사한 근래 연구를 보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개인 내에 공존하며, 한국과 같이 사회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기해석의 개인차가 크고, 서구식 사고나 생활방식에 익숙한 대도시 한국인일수록 독립적인 자기해석이 강하게 나타난다(Hyun,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자기해석이 단순히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현경자,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결과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기해석의 기능과 결혼결과(marital outcome)

결혼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의해 평가되는데, 결혼의 질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이나 행복과 같이 결혼관계의 질적 경험에 의해 그리고 결혼안정은 결혼의

해체나 와해가능성에 의해 판단된다(Lewis & Spanier, 1979).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 신념, 인상 등이 반영된 긍정적 감정 또는 태도로 본다면(현경자·김연수, 2002), 결혼생활이 유지되느냐 않느냐를 나타내는 결혼안정은 이혼이나 별거상태 뿐만 아니라 부부일방이나 쌍방이 결혼을 해체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혜정, 2002).³⁾ 학자들에 따르면, 자아 또는 자기(self)는 인간의 행동이나 세상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재하는 거점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Baumeister, 1998; Markus & Kitayama, 1991), 기혼자의 자기해석에 따라 결혼생활의 심리적 경험과 결혼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self-concept)은 끊임없이 받는 다양한 자극 중 무엇을 지각하여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Markus & Wulf, 1987),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한 사람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강한 사람의 인지과정, 행동동기, 감정경험 등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남이 지적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예를 들면, 독립적 자기해석은 개인의 주의(attention)와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타인과의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독특한 자질들을 발견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양성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연계된 자기를 부각시켜 개인의 주의와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며, 사회적 관계나 역할 등에 의해 자신을 표현하

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해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려는 동기를 양성한다(조금호, 2003, Fiske et al., 1998;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기혼자의 자기해석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되었느냐에 따라 결혼생활에서의 대인관계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 그리고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과 같은 결혼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기혼자의 자기해석은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적어도 네 가지 통합유형, 즉 (1)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음; (2) 독립성은 높고 상호의존성이 낮음; (3) 상호의존성은 높고 독립성이 낮음; 그리고 (4)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과 관계의 밝힌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각각 성역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특성과 유사함을 고려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연구에서 양성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갖춘 유형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부인의 여성성도 결혼만족에 기여한다(이미숙, 1997). 기혼여성의 경우, 여성성 및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 및 미분화형(여성성 및 남성성이 모두 낮은 유형) 집단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김양호, 1989; 민경신, 1986; 이영미·김정희, 1997).⁴⁾ 이 부류의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 미분화 유형의 결혼

3) 대부분의 결혼안정 연구에서 결혼해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혼 상태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체시키려는 부부의 행동심리적 경향도 안정성 평가에 고려한다(김미숙·김명자, 1990).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대부분 일치하지만, 그 외의 정체감 유형들의 결과에 때때로 차이를 보여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⁵⁾ 하지만 이 연구들을 통해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통합유형에 따라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⁶⁾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결혼생활의 안정성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최선희·전명희, 1999),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본다(김미숙·김명자, 1990; 최연실·옥선화, 1987; Lewis & Spanier, 1979).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은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헌신(commitment)을 강화시켜 결혼의 안정성을 높이므로(Impett, Beals, Peplau, 2003), 자기해석의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진다면, 그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도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각각의 자기해석이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다른 어떤 형태의 자기해석 통합 유형 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리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독립적 자기해석은 개인의 자율성을 촉진하고(Deci & Ryan, 1995) 자기존중감을 양성하여(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기혼자가 결혼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안녕감을 높일 수 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대한 동기를 양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발달시켜(Cross & Madson, 1997),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하므로 결혼만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자기해석 모두 결혼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⁷⁾ 더욱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자기해석을 동시에 명확히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개념의 복잡성을, 그리고 각각의 자기해석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개념의 명료성을 시사하는데, 서구의 자기개념 연구에서 자기개념의 복잡성(complexity)은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며(Linville, 1987), 자기개념의 명료성(clarity)은 자기존중감과 자신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따라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자기해석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촉진하는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⁸⁾

4) 호주부부들의 연구에서도 여성성 유형과 양성성 유형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Antill, 1983).

5)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정의 및 측정도구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6)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어 성역할 정체감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개인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은 성역할을 구분하는 특성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권을 구분하는 대표적 가치로써 사회구조와 제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하며 의미가 있다.

7)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다는 것은 두 자기해석의 균형 잡힌 통합을 전제하므로 자기해석의 양 측면이 모두 높은 유형이 결혼생활에 기능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Helgeson (1994)의 문헌고찰에서 논의된 극단적 행위주체성이나 극단적 친교성과 질적으로 다르다.

8) Linville(1987)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뚜렷이 구분하여 인식하고 각 측면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자기개념이 복잡적이다. 이처럼 자기개념이 복잡적이면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위협 받는 자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그

유일하게 자기해석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결혼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기여를 하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관계적 안녕감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도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현경자, 2004). 그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하면 사적 자기(private self)의 발달을 촉진하여 개인적 정체감을 강하게 부여하므로(조근호, 2003), 핵가족외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리라는 가설이 전체집단과 기혼여성 집단에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관계지향적 욕구를 양성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기혼자가 동시에 강하게 갖고 있다면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여 독립적 자기해석의 부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에서 드러나듯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문헌고찰에 근거하면, 독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울증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후속 연구들 중에 자기개념의 복잡성이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자기통제감이 낮을 때에 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Connell, Renaud, Dean et al., 2005 참조). 앞서 논의 한 자기해석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을 경우 자기 통제감도 높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하여, 자기개념의 복잡성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이 다른 어떤 자기해석 통합유형 보다 높은 결혼만족을 보이리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결혼만족은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켜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의 자기해석이 모두 낮은 유형은 각각의 자기해석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개념의 복잡성과 명료성이 주는 이점을 결여하고 있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그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도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은 개인적 정체감과 자율성의 행사 및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반면 관계지향적 욕구가 낮을 수 있어 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에 비해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그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도 낮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조사하였다. 첫째, 기혼남녀들이 지각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어떤 식으로 통합되어 분포되어 있는가? 둘째, 결혼결과와 측정기준이 되는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은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셋째, 자기해석 통합 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는 자기해석과 결혼결과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결혼만족의 효과에 의해 매개되는가?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각각의 긍정적 기능과 자기개념의 복잡성과 명료성이 주는 이점을 고려하여 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의 기혼자들이 다른 형태의 자기해석 통합유형보다 결혼생활에서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결혼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

지하리라는 결혼만족 매개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이 지배적인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의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이 이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에 비해 낮으리라 예측하였다.

방법

조사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세부터 75세 미만의 기혼남녀 489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집은 남녀의 성비 및 연령 집단의 고른 분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확률 할당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⁹⁾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처음 표집의 목적대로 남녀($n=246, 243$, 각각)의 성비와 연령집단에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8.28세($SD=13.81$)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이의 비율이 39.5% ($n=19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응답자가 36.2%($n=177$),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7%($n=34$)이었다. 응답자의 가계소득을 보면,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이들이 약 47% ($n=232$)이었고, 24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이 31.9%($n=151$)로 나타나 응답자의 주류가 중산층이나 그 이하 계층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결혼상태는 초혼(9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결혼기간은 1년 미만에서 60년($n=1$)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9)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현경자(2004)에 있다.

측정 도구

자기해석 통합유형: 응답자의 자기해석 통합 유형은 Hyun(1995)이 개발한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을 측정 후 구성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타인과의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2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예: “나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예: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각 척도의 응답범위는 ‘1.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8.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8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척도점수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된 자기해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3, .82 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ansas 결혼만족척도(Schumm, Paff-Bergen, Hatch et al., 198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문항으로 결혼만족을 측정하며, 다른 결혼만족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 척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다(정현숙, 1997). 응답자가 결혼생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각각 측정된 후 이 세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을 결혼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응답항목은 ‘1. 전적으로 불만족’부터 ‘7. 전적으로 만족’까지 7점 척도가 주어지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우수하였다.

결혼안정: 결혼안정은 기혼자가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성향을 묘사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항목 5개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별거 혹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배우자와 다툰다” “배우자와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결혼해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Booth, Johnson, & Edwards (1983)가 결혼을 와해시키려는 부부 간의 심리상태 및 성향을 결혼안정의 지표로 삼은 것과 일치한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언급된 일 또는 느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빈도를 생각해보고, 5점 척도(‘1. 전혀 않함; 2. 드물게; 3. 때때로; 4. 자주; 5. 항상’)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5개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결혼을 의미하도록 부정적으로 묘사된 항목은 역코딩을 하였다. 결혼안정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통제변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통제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¹⁰⁾ 성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은 햇수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의 측정은 “귀하는 현재 본인의 건강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단일 질문을 이용하였다. 응답항목으로 ‘1. 매우 건강하다’부터 ‘5.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다’까지 5점 척도가 주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음을 뜻하도록 역코딩을 하였다. 끝으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귀하는 가족 전체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비와 기타 지출에 충분하지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단일 질문에 의해 측정하였다. 응답항목으로 ‘1. 전혀’ 부터 ‘5. 상당히’ 까지 5점 척도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분포

자기해석 통합유형 구성의 기반이 된 각각의 자기해석 점수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독립적 자

10) Hyun(1995)의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여성들과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세하였으며, 독립적 자기해석은 연령이 높거나 서구식 사고 및 생활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높았다. Tanaka(200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두 자기해석이 높게 발견되었다. 결혼만족도는 남성들과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층(박은옥, 2001; 오선주, 2002 참조)에서 높게 발견되고 있다. 가정경제 안정도나 경제상태의 주관적 평가도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이며(임정빈·고보선, 1995; 이신숙·이경주, 1999), 기혼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의 질(이신숙·이경주, 1999)이나 가정생활만족도(최희선·손현숙, 1991)가 높게 나타난다.

기해석보다 높았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평균은 5.75($SD=0.73$)로 8점 척도에서 6점 ‘어느 정도 그렇다’에 가까웠고, 독립적 자기해석은 평균이 5.17($SD=0.83$)로 5점 ‘약간 그렇다’에 근접하여 응답자들의 독립적 자기해석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평균적으로 높았는데($M_s=5.30, 5.04, SD_s=0.79, 0.85$ 각각; $t=3.62, p<.001$), 그러한 성차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M_s=5.73, 5.77, SD_s=0.77, 0.70$ 각각; $t=.648, p=.52$).

기혼자들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자기해석 평균점수가 전체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1/2 표준편차 이상 높거나 또는 낮은 사례들을 선택하여 네 가지 유형, 즉 (1)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음; (2) 독립성은 높고 상호의존성이 낮음; (3) 상호의존성은 높고 독립성이 낮음; (4)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낮은 자기해석 미분화로 나누었다.¹¹⁾ 전체 표본의 다수(64%)가 이상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평균 수준의 자기해석을 보여 이들을 자기해석 통합의 평균 유형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에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통합유형별로 각각의 자기해석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및 비율을 제시하였다¹²⁾.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의 평균 점수는 각각 6점(어느 정도 그렇다)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각각이 낮은 유형의 그러한 점수는 4점(약간 그렇지 않다)과 5점(약간 그렇다) 사이의 수준을 보였다. 각 통합유형에 속한 자기해석의 평균점수는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 모두에서 이 두 자기해석이 보통 수준인 평균 유형의 그러한 점수보다 적어도 1 표준편차 또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구분이 의미상 타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유형 별로 자기성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1) 일반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같이 두 개의 변수(예: 여성성과 남성성)를 조합하여 그 유형을 구분할 때 각 변수의 평균점수(예: 이미숙, 1997)나 중앙치 분리(median split)(예: 김지경·김명소, 2003; 이영미·김정희, 1997)가 주로 사용된다. 이는 표본의 사례를 잃지 않고 유형을 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치와 평균 점수에 의한 구분이 객관적인 관점에서도 의미상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의 전체집단 평균점수는 5.17로 5점 “약간 그렇다”에 가까워 이 점수를 기준으로 독립성이 높거나 낮음을 구분한다면 의미상 타당도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구분이 의미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Jaccard, Turrisi, & Kwan(1990)이 제시한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 적절해보

이나(p. 27),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 기준에 맞는 대상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 1/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12) 기혼자들의 자기해석을 통합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어 남녀 하위집단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통합유형별 집단구성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및 분포^a

| | | 집단 1 | 집단 2 | 집단 3 | 집단 4 | 집단 5 |
|----|---------|-----------|-----------|-----------|-----------|-----------|
| | 독립성 | 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낮음 |
| | 상호의존성 | 높음 | 낮음 | 중간 | 높음 | 낮음 |
| 전체 | 독립성 | 6.26(.46) | 6.10(.49) | 5.14(.58) | 3.89(.64) | 4.28(.38) |
| | 상호의존성 | 6.58(.34) | 4.89(.48) | 5.71(.53) | 6.65(.35) | 4.80(.62) |
| | 사례수 (%) | 72(15) | 19(4) | 313(64) | 27(6) | 58(12) |
| 남성 | 독립성 | 6.27(.45) | 6.17(.52) | 5.20(.51) | 4.01(.36) | 4.32(.35) |
| | 상호의존성 | 6.53(.34) | 4.78(.56) | 5.67(.54) | 6.74(.46) | 4.78(.73) |
| | 사례수 (%) | 46(19) | 12(5) | 151(61) | 9(4) | 28(11) |
| 여성 | 독립성 | 6.25(.50) | 5.98(.45) | 5.01(.62) | 3.83(.75) | 4.25(.41) |
| | 상호의존성 | 6.67(.33) | 5.06(.23) | 5.74(.52) | 6.61(.29) | 4.83(.52) |
| | 사례수 (%) | 26(11) | 7(3) | 162(67) | 18(7) | 30(12) |

^a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척도의 응답범위는 “1.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2.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약간 그렇다; 6. 어느 정도 그렇다; 7. 대부분 그렇다; 8. 전적으로 그렇다” 임.

분석에 고려한 다섯 가지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분포를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 모두에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보통 수준인 평균 유형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는데, 여성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7%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거나 또는 모두 낮은 유형이 한 측면의 자기해석만 높은 유형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평균적인 집단과 자기해석의 성향이 뚜렷한 집단 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두 집단은 10년을 단위로 구분한 연령집단, $\chi^2(df=4, n=489)=17.72, p<.001$, 결혼기간, $\chi^2(df=3, n=489)=14.54, p<.01$, 건강상태, $\chi^2(df=4, n=489)=9.06, p=.06$,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해석의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는 응답자들 중에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장년 및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자기해석 구성과 분포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연령이 성인 한국인의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예측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Hyun, 1995)와 유사점을 보여 주목된다. 또한, 자기성향이 뚜렷한 집단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가설 검증 시 연령과 건강상태의 효과를 통제하였다.¹³⁾

전체 집단과 남성 집단의 경우,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각각 15%(n=72)와 19%(n=46)로 평균 유형 다음으로 많았으며,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그

13) 두 집단 간에 결혼기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결혼기간이 응답자의 연령과 높은 상관($r=.95, p<.001$)을 보여 이 연구에서는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뒤를 이어 각각 12%(n=58)와 11%(n=28)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서는 평균 유형 다음으로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이 많았으나(12%, n=30), 그 뒤를 이은 각각의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11%, n=26)과 수적인 차이가 미미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하거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 즉 자기해석의 한 측면만 높은 유형의 비율은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 모두에서 3% 이상 8% 미만의 범위에 속하는 소수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과 여성 집단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우세한 유형의 비율이 각각 6%와 7%로 독립성이 우세한 유형의 비율(4%와 3% 각각)보다 높았고, 남성 집단에서는 독립성이 우세한 유형과 상호의존성이 우세한 유형의 비율이 각각 5%와 4%로 별 차이가 없었다. 상호의존성 우세 유형의 비율이 여성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평균 유형이 많은 반면 자기해석의 양 측면이 모두 높은 유형이 적어 자기해석 통합 유형과 성별 간의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8.89(df=4, n=485)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분포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본 연구에서 드러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가설검증 시 성을 통제하였다.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결혼결과의 측정기준이 되는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이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을 참조집단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표 2에 있다.¹⁴⁾ 예측대로, 참조집단인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의 결혼만족도가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b = -.82, p < .05$)과 자기해석 미분화유형($b = -.97, p < .001$)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약 1점정도 높았고,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보다 약 0.8점정도 높게 나타났다.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의 결혼안정 점수도 예측대로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b = -.32, p < .10$)¹⁵⁾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b = -.37, p < .0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으나, 그 차이는 결혼만족에서 드러난 것만큼 크지 않았다. 자기해석의 평균적 통합유형도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에 비해 결혼만족도($b = -.44, p = .05$)와 결혼안정($b = -.14, p = ns$) 점수가 낮았으며, 결혼만족도와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¹⁶⁾

-
- 14) 회귀분석을 위해 각각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을 참조집단으로 하는 더미코딩(dummy coding)을 한 후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해석 통합유형들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회귀분석에 의해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변량분석에서 동일사례 수 가정이 위배될 때 권장되는 대안이다(박광배, 2003).
 - 15) 이 유의도는 일방향이며,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3 단계1 참조).
 - 16)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과 평균 유형 및 독립성 우세 유형 간의 결혼만족도 차이가 더욱 커졌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¹⁷⁾

| 변인 ^a | 결혼만족 | | | 결혼안정 | | |
|-----------------|------|-------|---------|------|-------|---------|
| | B | 표준 오차 | β | B | 표준 오차 | β |
| 집단2(독립성 우세) | -.82 | .33 | -.12* | -.32 | .20 | -.08* |
| 집단3(평균 유형) | -.43 | .17 | -.16* | -.14 | .10 | -.09 |
| 집단4(상호 의존성 우세) | -.27 | .29 | -.05. | -.15 | .17 | -.05 |
| 집단5(미분화 유형) | -.97 | .22 | -.24*** | -.37 | .14 | -.16** |

주. 결혼만족의 $R^2=.04$, $p<.001$; 결혼안정의 $R^2=.02$, $p<.10$.

^a 각 자기해석 통합유형을 1로 하는 더미코딩을 했음. 참조집단은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임.

+ $p<.10$ * $p<.05$ ** $p<.01$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강한 유형의 경우,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에 비해 결혼만족도($b=-.27$)와 결혼안정($b=-.15$)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예측대로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결혼만족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기혼자들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은 연구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¹⁸⁾

17) 자기해석과 결혼결과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면, 결혼만족의 $R^2=.05$, $p<.001$; 결혼안정의 $R^2=.02$, $p<.05$ 로 나타난다.

18)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분포와 결혼결과에 성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속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과정의 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요한다. 첫째, 예측변수(자기해석 통합유형)와 결과변수(결혼안정) 간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예측변수(자기해석 통합유형)와 매개변수(결혼만족) 간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 셋째, 예측변수(자기해석 통합유형)와 결과변수(결혼안정)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매개변수(결혼만족)의 효과가 통제될 때 사라져야 한다. 매개변수(결혼만족)를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예측변수(자기해석 통합유형)가 결과변수(결혼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0으로 나타나면 매개변수(결혼만족)가 예측변수(자기해석 통합유형)와 결과변수(결혼안정)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본 연구 질문 2의 분석은 매개과정 검증의 첫째와 둘째 단계에 해당하며, 앞서 보고하였듯이 변수들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자료에서 지지되었다.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결혼만족에 의해 매개되리라는 가설 검증의 셋째 단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변수들의 상호상관 및 기술통계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우선, 1단계에 가변수로 전환된 자기해석 통합유형 변수들과 자기해석 및 결혼결과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정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이 남녀하위 집단 모두에서 극히 소수로 드러나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및 생활비 걱정 등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 결혼만족 변수를 투입하여 1단계에서 드러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결혼만족의 효과가 통제됨에 따라 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3.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결혼안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a

| 변인 | B | 표준 오차 | β |
|----------------|------|-------|------------------|
| (Constant) | 4.94 | .34 | |
| 단계 1 | | | |
| 성 ^b | -.47 | .07 | -.31*** |
| 연령 | -.01 | .00 | -.13* |
| 교육수준 | .01 | .04 | .01 |
| 건강상태 | .06 | .04 | .07 ⁺ |
| 생활비 걱정 | -.15 | .03 | -.22*** |
| 집단2(독립성 우세) | -.42 | .19 | -.10* |
| 집단3(평균 유형) | -.15 | .10 | -.09 |
| 집단4(상호의존성 우세) | -.05 | .16 | -.01 |
| 집단5(미분화 유형) | -.35 | .13 | -.15** |
| (Constant) | 1.87 | .28 | |
| 단계 2 | | | |
| 성 ^b | -.19 | .05 | -.13*** |
| 연령 | -.00 | .00 | -.02 |
| 교육수준 | .02 | .03 | .02 |
| 건강상태 | -.01 | .03 | -.01 |
| 생활비 걱정 | -.04 | .02 | -.05 |
| 집단2(독립성 우세) | .02 | .13 | .01 |
| 집단3(평균 유형) | .07 | .07 | .04 |
| 집단4(상호의존성 우세) | .01 | .12 | .00 |
| 집단5(미분화 유형) | .07 | .09 | .03 |
| 결혼만족도 | .43 | .02 | .72*** |

주. 단계1의 $R^2=.18$; 단계2의 $R^2 \text{ change}=.42$ (둘 다 $p<.001$ 임).

⁺ $p<.10$ * $p<.05$ ** $p<.01$ *** $p<.001$

^a 참조집단은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임.

^b 남성=0, 여성=1.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 3을 보면, 1단계에서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통제 변수들—즉,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생활비에 대한 걱정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 참여한 기혼자들의 결혼안정성은 여성들보다 남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혼자의 연령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적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예측대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의 결혼안정성이 자기해석 미분화유형($b=-.35, p<.01$)과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b=-.43, p<.0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의 결혼안정 점수 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한 유형과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기해석의 평균적 통합유형($b=-.15$)과 상호의존성 우세 유형($b=-.05$)의 결혼안정 점수는 각각의 자기해석이 높은 유형보다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결혼결과와 자기해석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는 유형의 결혼안정성이 다른 어떤 자기해석 통합유형보다 높았으며, 이중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결혼만족 변수를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이를 통해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과 독립성 우세 유형 및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 간의 결혼안정성 차이가 결혼만족의 효과에 의해 매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모두를 높게 지각하고 실천하는 기혼자들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이나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생활에서 높은 만족을 느끼며,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설과 결혼만족의 매개효과가 자료에 의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논 의

이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자기해석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공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혼자들의 자기해석이 어떤 식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러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즉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기혼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혼자들보다 결혼생활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가족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으리라 보았고, 그러한 결혼만족은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켜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따라서 자기

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현대인들의 태도변화를 고려한 기존의 결혼결과 연구가 주로 성역할 태도나 성역할 정체감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여러 형태로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기혼자의 자기해석을 결혼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고, 결혼만족 뿐만 아니라 결혼안정까지 분석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의 질문별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토대로 구성된 응답자들의 자기해석 통합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자신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수준인 평균 유형이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였다.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 모두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그러한 평균 유형에 해당되었으며, 여성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7%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유형 다음으로 분포 비율이 높았던 자기해석 통합유형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거나 또는 모두 낮은 미분화 유형으로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에서 11%에서 19% 사이의 비율을 보였으며, 독립적 자기해석이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은 모든 집단에서 3% 이상 8% 미만의 소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 유형이 전체 응답자들의 60%를 넘을 만큼 우세하고,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의 비율 또한 10%가 넘게 나타나 자신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대다수 성인 한국인들의 인식이 확고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최상진(2000)은 상호작용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용시켜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서구식의 자기(self) 속성과 기능이 약화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19) 이 연구에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의 상관관계 ($r=.76$)가 높아 이 두 개념의 차별화 및 연구결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안정 척도 항목 중 결혼의 해체가능성, 즉 결혼불안정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일항목("별거 혹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를 사용하여 후속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55$ 로 나타났고, 자기해석 통합유형,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간의 관계는 연구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에 자신을 가질 수 있다.

데 본 연구의 결과도 그러한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²⁰⁾

특히 이 연구에서 기혼 여성의 자기해석 통합은 기혼 남성에게 비해 평균 유형과 미분화 유형이 많았고,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여성 집단에서 적게 나타나 기혼여성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이 기혼 남성들에 비해 명확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²¹⁾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성찰 그리고 자기개발을 격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들 다수가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한국인들의 자기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은 예측대로 자기해석의 통합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이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는 예측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하지만 자기해석 통합유형별 결혼결과의 차이는 결혼안정 보다 결혼만족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고,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가설개발 시 고려되지 않았던 평균 유형보다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 기혼자의 자기해석 특성은 결혼의 질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혼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으리라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유형과 두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 간의 결혼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가 자신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결혼결과에 특히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끝으로, 기혼자의 자기해석과 결혼결과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생활비에 대한 걱정 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모두 높은 이들이 독립성이 우세한 유형과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 보다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보고하였으며, 그러한 자기해석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간의 관계는 결혼만족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간의 관계가 결혼만족에 의해 매개되리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기혼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가 결혼만족과 같은 결혼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결혼의 안정성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 위계적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젊은 층에 자기해석의 평균적 통합유형이 우세하고, 한국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두 자기해석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Hyun, 1995)도 그러한 관점의 해석을 지지한다.

21) 남녀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나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성차가 교육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 교육을 어느 정도 이상 받은 응답자들만을 후속적으로 선택하여 자기해석 통합유형을 살펴보았으나 성차는 여전히 유의하였다.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하위 여성 집단은 전체 여성 집단에 비해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나, 평균 유형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았으며, 자기해석의 두 측면이 모두 높은 이들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기혼자들이 독립성이 우세한 유형이나 자기해석 미분화 유형보다 높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보여주어 서구의 연구들(예: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Linville, 1987)이 시사한 대로 자기개념의 복합성이나 명료성이 기혼자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보게 된다. 앞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개념의 복합성과 명료성을 본 연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여 이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²²⁾ 또한, 이 연구는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보고한 기존문헌(김영희, 1999; 이정은·이영호, 2000; Caughlin et al., 2000; Fitzpatrick, 1988)을 지지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 양성성 기혼자들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인 선행연구(예: 김명순·이주옥, 1988; 민경신, 1986; 이미숙, 1997; 이영미·김정희, 1997)와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²³⁾ 본 연구는 그러한 자기특성이 결혼만족을 통해 결혼안정에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현대 한국의 기혼자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문화적 지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

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나이와 더불어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자기특성을 고려하면(Hyun, 1995), 남녀 모두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일찍부터 이 두 자기성향의 긍정적 측면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까지 개인의 자기성향과 결혼의 질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구의 이론이나 연구는 성역할의 사회화로 인해 남녀에게 각각 발달된 독립지향성과 관계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Thompson & Walker, 1989; Veroff et al., 1981), 문화가 자기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남녀가 갖고 있는 자기해석의 다양성을 간과해왔다. 본 연구는 유교문화권에서 강조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역할과 남녀가 갖고 있는 자기해석의 이원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결혼만족 뿐만 아니라 결혼안정까지 분석에 포함시켜 현대 한국 기혼자들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각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의미상 타당도를 고려한 구분을 시도하여 평균 유형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임상현장에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도모하는 데 유용한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표본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들로 성별 및 연령 집단의 고른 분포

22) 자기개념의 명료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명확히 자신있게 규정하고, 그러한 자기개념이 일관되고 안정적 인 것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96).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다는 것은 자신을 명확하고 자신 있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자기개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아 그러한 추정에 한계가 있다.

23) 기혼여성의 경우 여성성 유형이 양성성 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예: 김양호, 1989; 민경신, 1986; 이영미·김정희, 1997)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성을 구분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를 위해 비확률 할당표집을 했으므로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대표성을 띤
성인 한국인들의 표본을 확보하여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이나 자기해석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으므로 연구 결과가 참가자들의 응답 성향과 연
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설문조사에서
양극단 보다 중간치의 응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서양인들은 주어진 응답 항목의 극단을 잘
선택한다(Heine et al., 1999). 이 연구에서 자기해
석 통합유형 중 평균 유형이 우세를 보인 것은
중간치를 선택하는 동양인들의 응답성향이 반영
된 것일 수 있고, 여성 집단에서 그러한 유형이
우세한 것도 응답성향의 성차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따라서 행동관찰, 시
나리오를 이용한 응답차 조사 등 자기보고식 설
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
성을 모두 높게 지각하고 실천하는 기혼자들이
결혼만족을 높게 보고하며, 그로 인해 결혼생
활이 보다 안정적임을 보여주지만, 횡단적 자
료를 사용하였으므로 그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역으로 안정
적인 결혼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기혼
자의 자기발달을 촉진하여 독립성과 상호의존
성에 대한 자기해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
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점수를 조합하여 통합유
형을 구분하고 두 변수의 조합 방식에 따라 자
기해석의 복잡성이 차이가 나리라는 가정을 하
였다. 앞으로 자기해석의 복잡성을 보다 정교

하게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요
구된다.

끝으로,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결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혼자 개
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
혼생활의 질은 부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Thompson & Walker,
1989), 부부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에 따라 상대
방 배우자가 인식하는 결혼만족이나 결혼안정
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
으리라 본다. 또한, 행복한 부부들이나 결혼생
활이 원만하지 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간의 자기해석 통합유형의 일치가 중요한지 아
니면 보완적 형태나 특정 측면의 자기 성향을
부부가 동시에 높게 갖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
펴는 연구가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명순, 이주옥 (1988).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
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26(4), 155-167.
- 김미숙, 김명자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
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8(1), 171- 184.
- 김양호 (1989).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부
부간의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 석사 학위논문 (미간행)**.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
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 77-95.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민경신 (1986). 우리나라 주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학위논문 (미간행)**.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은옥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508-517.
- 박태온 (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39-150.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동원, 최선희 (1997). 부부평등과 결혼만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9, 149-183. 이화여자대학교.
- 이미숙 (1997).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이신숙, 이경주 (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1-13.
- 이영미, 김정희 (1997).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51-365.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임정빈, 고보선 (1995). 도시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혜정 (2002).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9), 17-34.
- 조공호 (2003).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229-283.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선희, 전명희 (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최연실, 옥선화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83-98.
- 최외선, 손현숙 (1991). 도시 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4), 99-114.

- 통계청 (2004). 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현경자, 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결혼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해석과 결혼만
족의 관계: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해
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9(2),
225-263.
- Antill, J. (1983). Sex role complementarity versu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45-155.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pp. 680-740).
Boston, MA: McGraw Hill.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Campbell, J.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Trapnell, P., Heine, S. et al.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ughlin, J., Huston, T., & Houts, R.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336.
- Cooper, K., Chassin, L., & Zeiss, A. (1985). The
relation of sex-role self-concept and sex-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1-2),
227-241.
- Cross, S. (1995). Self-construals, coping, and stres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26(6), 673-697.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Deci, E., & Ryan, R. (199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5):
404-416.
- Fiske, A., Kitayama, S., Markus, H., & Nisbett, R.
(1998).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pp. 915-981) Boston, MA: McGraw Hill.
- Fitzpatrick, M. (1988). Approaches to marital
interaction. In P. Noller, & M.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72-95).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Ltd.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on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ne, S., Lehman, D., Markus, H.,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elgeson, V.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9). *Equal partners: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Hyun, K. J. (2001). Is an independent self a requisite for Asian immigrants'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S.?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 / 4), 179-200.
- Impett, E., Beals, K., & Peplau, L. (2003). Testing the investment model of relationship commitment and stability in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In N. J. Pallone (Ed.), *Love, romance, sexual interaction: Research perspectives from current psychology*(pp. 163-18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Jaccard, J., Turrisi, R., & Kwan, C. K. (1990).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wan, V., Bond, M., & Singelis, T.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38-1051.
- Lam, A., & Zane, N. (2004). Ethnic differences in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ors: A test of self-construals as cultural mediato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4), 446-459.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pp. 23-35). NY: Free Press.
- Linville, P.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 Maccoby,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y*, 45(4), 513-520.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Connell, A., Renaund, J, Dean, K., Green, S.,

- Lamoreaus, M., Hall, C., & Rydell, R. (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1), 1-18.
- Misra, G., & Giri, R. (1995). Is Indian self predominantly interdependent?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13(1), 16-29.
- Schumm, W., Paff-Bergen, L., Hatch, R.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tevens, D., Kiger, G., & Riley, P. (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514-526.
- Thompson, L., & Walker, A.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Veroff, J., Douvan, E., & Kulka, R. A. (1981). *The inner American: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1 차원고접수 : 2007. 4. 25.
수정원고접수 : 200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7. 12. 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137-160

Types of Self-Construal Integration and Marital Stability: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s a Mediator

Kyoung Ja Hyun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marital satisfaction mediates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self-construal integration on marital stability. It hypothesized that married people with both high independent and hig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would experience higher marital satisfaction that, in turn, contributes to marital stability.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489 married people (aged 25-75)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As expected, those who held both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highly showed both higher marital satisfaction and higher marital stability than those with high independent and low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and those with both low independent and low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Moreover,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health, and perceived financial difficul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effects of these different types of self-construal integration on marital stability were almost completely mediated by marital satisfaction. The data fully supported the hypothesis, and suggest that holding both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highly would contribute to marital outcome in a positive manner.

Key word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self,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tegration of self-construals

<부록> 결혼만족, 결혼안정, 자기해석 통합유형*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상호상관

| 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
|----------|-------------------|-------------------|-------------------|-------------------|-------------------|-------------------|------|-------------------|-------------------|-------------------|-------------------|-----|-----|
| ① 결혼만족 | - | | | | | | | | | | | | |
| ② 결혼 안정 | .76 ^c | - | | | | | | | | | | | |
| ③ 성별 | -.27 ^c | -.32 ^c | - | | | | | | | | | | |
| ④ 연령 | -.07 ^a | -.06 | -.02 | - | | | | | | | | | |
| ⑤ 교육수준 | .16 ^c | .18 ^c | -.28 ^c | -.41 ^c | - | | | | | | | | |
| ⑥ 건강상태 | .20 ^c | .16 ^c | -.12 ^b | -.21 ^c | .29 ^c | - | | | | | | | |
| ⑦ 생활비 걱정 | -.22 ^c | -.20 ^c | .02 | -.23 ^c | -.01 | -.12 ^b | - | | | | | | |
| ⑧ 집단1 | .14 ^b | .08 ^a | -.11 ^b | .22 ^c | .04 | .00 | .03 | - | | | | | |
| ⑨ 집단2 | -.06 | -.04 | -.05 | -.06 | .01 | .02 | -.01 | -.08 ^a | - | | | | |
| ⑩ 집단3 | .01 | .02 | .05 | -.16 ^c | .05 | .07 | -.01 | -.55 ^c | -.27 ^c | - | | | |
| ⑪ 집단4 | .03 | .00 | .08 ^a | .05 | -.11 ^a | -.11 ^b | -.04 | -.10 ^a | -.05 | -.32 ^c | - | | |
| ⑫ 집단5 | -.15 ^c | -.10 ^a | .02 | -.01 | -.05 | -.05 | .01 | -.15 ^c | -.07 | -.49 ^c | -.09 ^a | - | |
| 전체 | Mean | 4.83 | 3.67 | 1.50 | 48.24 | 3.23 | 3.37 | 2.72 | .15 | .04 | .64 | .06 | .12 |
| | (SD) | 1.30 | .77 | .50 | 13.80 | 1.03 | .92 | 1.12 | .35 | .19 | .48 | .23 | .32 |

^a $p < .05$; ^b $p < .01$; ^c $p < .001$

*집단1(독립성, 상호의존성 높음); 집단2(독립성 우세); 집단3(평균 유형); 집단4(상호의존성 우세); 집단5(미분화유형)